

2020 **꿈** 을 쏘다 <1>광주시립발레단 주역무용수 강은혜

경자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도 지역 예술인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문화계를 풍성하게 할 터다. 각 장르에서 도약을 꿈꾸는 젊은 예술가들을 소개한다.

“저로 인해 누군가가 꿈꿀 수 있었으면”

지난해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은 4회 공연 모두 매진을 기록하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주인공 클라라 역을 맡은 4명의 주역 무용수들은 각자만의 개성이 담긴 몸짓으로 많은 박수 갈채를 받았고, 우아한 몸짓과 세련미, 테크닉을 선보인 발레리나 강은혜(29)씨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강씨는 2018년 3월 광주시립발레단에 입단한 후, 그해 7월 바로 주역을 맡는 등 발레단의 간판 스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 춤을 본 관객분들이 모두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로 인해 누군가 행복감을 느끼고 꿈을 꿀 수 있다면 성공한 발레리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광주문화예술회관 시립발레단 연습실에서 만난 강씨는 “인터뷰를 많이 해보지 않아 떨린다”며 “2018년 ‘백조의 호수’로 주연 데뷔를 한 후 ‘라 실피드’, 창작 발레 ‘달빛 아리랑’ 등을 거쳐 최근 선보인 ‘호두까기 인형’까지 쉼없이 달려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첫 주연작 ‘백조의 호수’를 선보일 때는 다른 단원들의 격려가 힘이 되기도 했고 열심히 하는 후배들을 보며 자극을 받기도 했다.

“처음으로 주역을 맡은 ‘백조의 호수’ 때가 가장 힘들어서 제일 기억에 남아요. 어렵기로 유명한 ‘백조’를 선보이려니 막막했지요. 시립발레단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연습시간도 많지 않았고요.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작품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주연으로서의 부담감과 압박감이 심해서 공연 말미엔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어요.”

광주 출신인 강씨는 초등학교 2학년 방과 후 활동 때 발레를 처음 접하고 무용수의 꿈을 키웠다. 처음엔 엄마의 권유로 시작했는데 점점 흥미를 느꼈다. 초등학교 6학년때부터 호남예술제에 출전하기 시작해 동아여중 1학년 때인 2005년부터 동아여고 3학년인 2010년까지 매해 최고상을 수상했고 국외의장상도 함께 받았다.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진학했고 2013 서울국제무용콩쿠르 시니어 여자 2위, 2013 나가는 국제 무용콩쿠르 시니어 발레 1위, 2014 이스탄불 국제 무용콩쿠르 시니어 여자 1위 등을 차지했다.

어렸을 때부터 수많은 무대에 올라 온 강씨는 무대질이라고 웃었다.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 하나도 떨리지 않아요. 오히려 준비할 때, 무대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이 제일 긴장되죠. 그럴때마다 너무 떨려서 수명이 줄어든다는 기분이지만 그 순간도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강씨는 처음 시립발레단에 들어왔을 때 무용수 생활을 수십년 간 해온 선배들을 보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고 했다.

“이 길을 꾸준히 걸어온 선배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한 길을 계속 걷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발레리나는 수명이 짧고 부상의 위험도 늘 함께하죠. 선배들을 보며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됐죠.”

반 평생을 해온 발레이지만 사실 지금도 가끔 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강씨는 주어진 배역을 잘해내고 싶은데 쉽지 않을 때가 가장 힘들다고 했다. 배우는 주로 대사로 관객과 소통하지만 발레리나는 오로지 몸으로 관객을 설득하고 감동을 줘야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한 캐릭터에 몰입해 춤을 춘다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역할에 대해 완전히 이해를 못하면 몸으로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올 7월 광주시립발레단은 차이콥

스키 3대 발레의 또 다른 작품인 ‘잠자는 숲속의 미녀’ 전막 공연을 광주지역 최초로 선보인다. 러시아 볼쇼이 극장 지도자가 직접 광주를 찾아 준비하는 무대로 강씨는 이번 작품에서도 주역을 맡았다. 발레단의 공식적인 스케줄은 2월부터 시작되지만 개인적인 연습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다.

“인생에서 발레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땐 여유가 없어 조금이라도 틀리면 큰일나는 줄 알았죠.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더욱더 우아한 동작과 몸짓으로 관객들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행복을 위해 또 관객분들의 만족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전은재 기자 ej6621@



호남예술제·이스탄불 콩쿠르 수상

입단 4개월만에 ‘백조의 호수’로 주역 발탁

발레로 관객과 소통... 결국 자신과의 싸움

7월 첫 전막공연 ‘잠자는 숲속의 미녀’ 주인공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홍콩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라모폰 ‘올해 오케스트라’ 홍콩필하모닉 광주 무대

3월13일 문예회관서 공연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이 ‘올해의 오케스트라’로 선정한 홍콩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오는 3월 내한해 광주를 찾는다.

홍콩필하모닉은 3월 1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과 프코코피에프 교향곡 제5번을 들려줄 예정이다.

1957년 창단한 홍콩필하모닉은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오케스트라다.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닝 펑, 마티아스 괴르네, 랑랑, 위 룡, 윤디리 등 세계 유수의 지휘자, 솔리스트가 이들과 협연했다.

아시아에서 그라모폰의 ‘올해의 오케스트라’에 선정된 건 홍콩필하모닉이 처음이다.

홍콩필하모닉의 도약에는 지난 2012년 부임한 상임지휘자 얀 판 즈베덴의 영향이 크다. 네덜란드



얀 판 즈베덴

출신인 그는 2018년엔 홍콩 필하모닉과 함께 4년간 준비한 바그너 ‘니벨룽의 반지’ 4부작(20시간)의 공연 실황을 녹음하는 등 다양한 음반을 발매했다. 원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즈베덴은 미국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권유로 37세에 지휘자로 전향했다.

2018년 시즌부터 뉴욕필하모닉 음악감독으로 선임돼 현재 홍콩필하모닉을 동시에 이끌고 있다. 이 밖에도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에서 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홍콩필하모닉은 광주를 비롯해 대전 예술의전당(3월10일), 서울 예술의전당(3월11일), 춘천 문화예술회관 대극장(3월12일) 등에서도 연주회를 연다. /전은재 기자 ej6621@

계절이 자아내는 정취 ‘설한풍정(雪寒風情)’ 전

7인 참여작가... 15일까지 롯데갤러리

함박눈을 맞으며 서 있는 허름한 국밥집, 쌓인 눈이 녹아드는 고즈넉한 산사, 강아지와 눈발에 누워 있는 소녀...

겨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롯데갤러리는 7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겨울기획 ‘설한풍정(雪寒風情)’전을 오는 15일까지 개최한다.

공사장의 겨울 풍경을 담은 고마음은 재개발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변화하는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다. 포장에 둘러싸인 공사 현장이 거대한 선물처럼 보였다는 작가는 새로운 장소에 대한 낯설음과 기대를 파스텔톤 위주의 색감과 단순화시킨 화면에 투영한다. 길가에 버려진 금인형이 계기가 돼 탄생한 캐릭터로 현대사회의 관계상실과 고립 등을 이야기해온 윤석문은 이 겨울 길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 내리는 밤길을 걷는 인형들을 표현했다. 이관수는 운주사의 겨울 풍경과 오래된 국밥집, 잔불이 꺼진 연탄 등을 그려냈다.

조정태는 산사의 겨울과 해무가 내려 앉은 겨울 바다, 눈비가 내리는 겨울 숲을 담았다. 요사체로 스며드는 새벽빛과 녹아 내리는 눈은 산사의 풍경에 고즈넉함을 더한다. 오래된 골목길 풍경을 담아



이관수 작 ‘다시 또 겨울’

은 조연은 쌓인 눈에 비친 나무 그림자와 겨울 사레기, 눈 오는 날의 학동 풍경을 표현했다.

조각의 입체성과 회화의 평면성을 조화시켜 부조형식의 회화를 선보여온 채경남은 첫눈의 설렘을 조각으로 풀어냈다. 첫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날 반려견과 함께 첫눈을 만끽하는 소녀, 첫눈 오는 날 눈발에 드러누워 하늘을 향해 미소 짓는 아이까지 첫눈의 순수함과 동심을 따듯한 질감의 테라코타 작품으로 표현했다. 최진우는 천왕봉과 안양산에서 본 무등산과 정상 저 아래의 구비구비 산세를 따듯하게 품어낸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시무식” 및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시무식” 및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승무원지정숙소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